

메를르-퐁티의 ‘살’개념 비판

이시우

메를르-퐁티를 깊이 알진 못하지만 그의 문제의식과 그의 ‘살’개념이 흥미로워 관심을 갖고 읽었다. 지각을 대상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점과 지각의 전개를 내재적, 변증법적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점이 관심을 끈 대목이다. 메를르-퐁티의 관점에서 그를 비판할 능력은 없으므로, 헤겔 『대논리학』의 관점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비교하며 읽어본 감상을 몇 자 적어본다.

1. ‘살’

메를르-퐁티의 ‘살’개념은 다음과 같다.

‘나의 오른손이 나의 왼손을 만질 때 나는 이 왼손을 하나의 ‘물리적 사물’로 느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만일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나의 왼손 역시 나의 오른손을 느끼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살(Leib)이 되고 그것은 느낀다. 물리적 사물이 살아 움직인다 —보다 정확하게 말해 물리적 사물은 그것인 대로 남아있고,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탐색하는 능력(puissance exploratrice)이 이 물리적 사물위에 놓이고 그 안에 거주하게 된다. 따라서 나는 만지는 나를 만진다. 내 몸은 ‘일종의 반성’을 수행한다. 내 몸 안에는, 내 몸을 통해서, 느끼는 자와 그가 느끼는 것 사이의 관계란 의미에서의 관계만이 있지는 않다: 관계는 역전된다. 나에게 만져지던 손이 만지는 자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만짐이 몸 안에 퍼져있다고, 몸은 ‘느끼는 사물(chose sentante)’ ‘주체 - 대상’이라고 말해야 한다.’¹⁾

‘살’개념은 만짐/만져짐, 봄/보임의 관계역전, 상호전환 혹은 가역성을 특징으로 한다. 상호전환한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음과 상대로의 수렴을 전제한다. 즉 만짐/만져짐, 봄/보임의 분화와 수렴의 통일성이 살의 진리인 셈이다.

또 달리 표현하면 지각하는 몸과 지각되는 세계로의 ‘분화(différenciation)’의 운동과, 몸과 세계의 ‘존재론적 동질화(homogénéisation ontologique)’의 운동이며, 이는 다시 지각하는 몸이 지각되는 세계로부터 분기하는 ‘원심성’의 운동과, 지각하는 몸이 지각되는 세계로 복귀하는 ‘구심성’의 운동이다.²⁾

비유를 들어보자.

거대데이터센터에 인류의 지식전체가 저장되어 있다고 치자. 내가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은 정보를 나의 것으로 출력하여 가져오는 과정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검색정보를 흔적으로 남기고 입력하는 과정이다. 데이터센터의 지식을 보는 것은 나의 보기를 데이터센터에 보이는 과정이다. 그리하여 정보가 데이터센터로부터 나에게로 출력되어 분화되는 원심성과, 나의 정

1) Maurice Merleau-Ponty, *Signes*, (Gallimard, 1960), p.210; 박신화, 「메를르-퐁티의 살 철학과 경험의 발생론」, 『철학과 현상학 연구』Vol.55, (한국현상학회, 2012), p.72

2) 박신화, 「메를르-퐁티의 살 철학과 경험의 발생론」, 『철학과 현상학 연구』Vol.55, (한국현상학회, 2012), p.73

보가 데이터센터에 입력되어 데이터로 합쳐지는 구심성이 동시에 작용한다. 데이터센터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용자는 이용대상인 정보를 구별해서 분리시키지만 이용자행위 또한 이용대상으로서의 정보가 된다는 점에서 정보로의 수렴·동일화일 뿐이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자.

별은 자기 먹이를 꽃에서 찾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꽃가루를 묻혀 다른 꽃에 수분한다. 별은 꽃으로부터 꽃가루를 빼앗겨 원심성을 갖지만, 별이 묻혀온 가루를 자기가 다시 빼앗아 이용하기에 구심성을 갖는다. 이처럼 순환체계는 구별과 동일, 원심과 구심이 통일된다. 메를로-퐁티의 표현에 따르면 이러한 순환체계전체가 살이다. 그러나 비유의 적절성은 여기까지다.

내가 출력한 정보와 내가 남긴 입력정보는 전혀 다른 질의 정보이다. 전자가 내용이라면 후자는 과정이다. 동일시간이지만 동일관점·동일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둘이 모순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³⁾ 만짐/만져짐 역시 한번은 왼손의 관점에서 성립하고 한번은 오른손의 관점에서 성립하므로 동일시간·동일관점·동일내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메를로-퐁티는 만짐/만져짐의 가역성을 봄/보임의 가역성으로 자연스럽게 확장시키고자 했다. 만짐/만져짐의 가역성이, 만지는 자가 만져질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듯, 봄/보임의 가역성이, 보는 자가 보이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해야 할 텐데 그러나 이러한 입증은 어려워 보인다. 봄과 보임도 문제인데, 봄을 보는 자와 보이는 것 사이의 가역성으로까지 정립하고자 하기 때문이다.⁴⁾ “나는 만지는 나를 만진다”는 직관적으로도 성립하지만, 나는 보는 나를 보지 못한다. 기억이나 거울 같은 매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보는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메를로-퐁티 역시 “나의 눈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⁵⁾는 것을 인정한다.

메를로-퐁티는 봄/보임, 만짐/만져짐과 동시에 보는 자/보이는 것, 만지는 자/만져지는 것으로의 분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봄에 의해서만 보이는 대상을 볼 수 있고, 만짐에 의해서만 만져지는 대상을 만질 수 있다. 존재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보이는 존재, 만져지는 존재로서 존재한다. 즉 살의 의복을 입지 않은 존재자체를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시선으로 어루만짐으로써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것이며, 시선이 감싸고 있고 시선이 자신의 살로 옷을 입히기에 우리가 결코 완전히 ‘벌거벗은 (toutes nues)’모습을 볼 수 없는 사물들이다.’⁶⁾

이는 일원론을 구축하려는 메를로-퐁티의 주목할 만한 점이다. 주관과 객관, 예지계와 현상계의 넘을 수 없는 분리의 이원론을 해결하기 위한 메를로-퐁티의 일원론 전략은 감각된 존재가 실재존재라는 것이다. 이로서 봄/만짐의 행위는 존재를 규정한다.

3) 이 비유의 또 다른 한계는 데이터센터가 아무리 거대해도 인간이 만든 동일성의 체계라고 할 수 있지만 세계는 영원한 인간의 타자이다.

4) 14) 사실, 후설은 만짐의 가역성을 봄의 이 ‘비가역성’에 대립시킴으로써 살의 구성에 있어서 만짐의 특권성을 주장한 바 있다. J. Slatman, “The sense of life: Husserl and Merleau-Ponty on touching and being touched”, *Chiasmi International* 7, (Vrin/Mimesis/University of Memphis, 2005), pp.305-325참조.

5) Merleau-Ponty, *Le Visible et l’Invisible*, (Gallimard, 1964)/(남수인, 최의영 옮김, 동문선, 2004), p.308

6) Merleau-Ponty, *Le Visible et l’Invisible*, (Gallimard, 1964)/(남수인, 최의영 옮김, 동문선, 2004), p.173

2. 경험

메틀로-폰티의 근본개념에 따르면, 철학의 참된 대상은 발생 중에 있는 경험이다. 이는 두 단계로 구분되는 지각의 다음과 같은 특징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시각단계는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시각적 정보들을 온전히 상향식으로 뽑아낸다. 따라서 이 과정에는 하향식의 인식적 접근은 불가능하게 된다. 즉 초기시각단계는 인식적으로 침투불가능한 단계이다. 이런 단계의 내용들은 모두 필연적으로 비개념적 내용들이다.’⁷⁾

이 구분에 의하면 초기시각단계·순수시각단계는 비개념적 내용을 갖고, 후기시각단계·의식개입 단계는 개념적 내용을 갖는다. 지각의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은 두 가지 다른 시각단계의 결과물인 셈이다. 폰티의 ‘발생중인 경험’은 초기시각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의 지각내용은 비개념적인 내용이다. 즉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고, 결국 지각된 내용을 알 수 없다.

주목해야 할 것은 지각자가 소유한 개념의 전개나 의존없이 순수한 지각(mere perception)이 일어날 수 있고⁸⁾ 지각의 비인지적, 비개념적 기제에 의해 그 내용이 구성되었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대한 접근은 반드시 늘 인지적 침투 혹은 개념적 능력의 개입을 허용하며 그에 의존하지 않고는 초기시각단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맥도웰의 입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지각경험을 설명함에 있어, 지각적 수용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개념적 능력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각적 수용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에 우리의 지성의 자발성이 동시에 발휘된다고 한다.⁹⁾ 지각결과물로서의 내용만이 아니라 발생과정에서도 개념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도된 행위가 아닌 우리의 지각이 갖는 고유한 특징이며 우리의 지각이 발생할 때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과정이다. 물론, 의식경험 안에서 아직 개념적으로 포착되지 않은 내용을 비개념적 내용으로 정의한다면, 위의 문제는 해결될 듯 보이지만 이 역시 개념적 능력과 언제나 마주할 가능성을 지닌 지각적 내용이므로 개념적 내용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

이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면 우리는 하위단계에 어떠한 표상내용이 담겨질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된다.

하위단계의 표상적 내용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오로지 상위단계 뿐이며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채 하위단계에만 남아 있는 어떠한 지각정보를 지각의 표상적 내용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맥도웰이 지적하였듯이 ‘마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as-if attribution)’ 가정할 뿐이

7) A. Raftopoulos, *Cognition and Perception: How Do Psychology and Neuroscience Inform Philosophy?*, (MA: MIT Press, Cambridge, 2009), p.146; 김태경, 「지각경험의 하위단계와 비개념적 내용」, 『철학·사상·문화』No.23,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7), p.12

8) 헵(Heck)이나 크레인(Crane) 같은 ‘상태관점(state vies)’을 옹호하는 비개념주의자들은 우리가 지각 상태에 있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적 능력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안의 지각적 정보들은 모두 비개념적 내용이라 칭한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의 존재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은 관찰이나 물리적, 신경학적 접근과 같은 신경학적 사실 또는 ‘마치 ~인 것 같은 가정(as if attribution)’과 같은 제 3자의 관점을 제외하면 오로지 지각자의 명제적 태도와 같은 것에 의한 인지적 침투 혹은 지각이 일어난 후의 지각자의 개념적 기제에 의존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개념적 내용이 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된 주장이다. 김태경, 「지각경험의 하위단계와 비개념적 내용」, 『철학·사상·문화』No.23,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7), p.21

9) J. McDowell, *Mind and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4 footnote 3.; 김태경, 「지각경험의 하위단계와 비개념적 내용」, 『철학·사상·문화』No.23,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7), p.22

다. 그리고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자기모순에 빠지고 만다.

호흡에 관한 모든 가능조건들이 모두 명확한 사실이지만, 그 점이 나로 하여금 그와 관련된 대상, 산소와 같은 대기 중의 가스에 관한 의식적 경험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위단계의 개념적 접근 또는 인지적 침투에 의해서 우리는 그 존재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¹⁰⁾

메를로-퐁티는 발생 중에 있는 경험을 사유, 표현하길 원했다.

경험의 내용만이 아니라 표현도 경험자체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사유되고 표현되는 경험만이 실재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경험의 표현은 논리적 서술은 고사하고 단순서술조차 난관에 부딪힌다. 감각의식의 전개과정을 헤겔은 세 가지 단계로 요약한다.

- 1) 나는 '지금'을 지적하면서 이를 곧 진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곧 다시 나는 이것을 이미 지나가 버린 것 혹은, 이양된 것으로 지적함으로써 첫 번째 진리는 지양된다.
- 2) 이제 나는 '지금'은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지양되었다는 것을 두 번째 진리로 주장한다.
- 3)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여기서 나는 두 번째 진리를 재차 지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지금의 지금'을 부정하게 되고, 마침내 '지금은 있다'라는 최초의 위치로 돌아간다.¹¹⁾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지금이 아닌 것이 된다. 경험을 아무리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해도 매개없는 표현은 불가능함에 직면하는 것이다. 표현은 항상 한계를 갖기에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 어딘가에 따로 있다고 하면 이는 칸트의 물자체처럼 이원론이 된다. 메를로-퐁티 역시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봄이, 만짐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보이는 것, 어떤 만질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속하고 있는 모든 보이는 것 쪽으로 돌아설 때, 모든 만질 수 있는 것 쪽으로 돌아설 때, 또는 갑자기 모든 보이는 것으로, 모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할 때이다.'¹²⁾

경험은 항시 어떤 보이는 것(혹은 만질 수 있는 것)이 모든 보이는 것(혹은 만질 수 있는 것)에 환원될 때 발생한다. 부분이 전체 속에서 파악될 때, 개별이 보편 속에서 파악될 때 경험이 발생한다. 봄·만짐도 개념과의 연관 속에서만 경험된다. 헤겔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지각을 통해서 "유(類), 보편적인 것, 법칙"이 발견될 때 거기서 경험이 생긴다.'¹³⁾

이는 현대 분석철학자들도 공유하는 인식이다. 러셀이 감각정보와 사고를 분리시켜 감각정보

10) 김태경, 「지각경험의 하위단계와 비개념적 내용」, 『철학·사상·문화』No.23,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7), p.18

11) 이강화, 「헤겔에서의 경험의 의미-‘자연적 의식’과 ‘감각적 확실성’을 통해서 본 감각의 의미와 그 한계」, 『철학논총』제24집 2권, (새한철학회, 2001), p.209

12) Merleau-Ponty, *Le Visible et l'Invisible*, (Gallimard, 1964)/(남수인, 최의영 옮김, 동문선, 2004), p.183. 또한 185, 187, 191, 203도 참조.

13) 『뉘른베르크 저작집』4.209f. II; 「경험」, 『헤겔사전』, (서울: 도서출판b, 2009), p.19

를 감성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본데 비해, 셀라스는 감각정보에 이미 개념이 포함되어있다고 본다.

‘즉 앵무새는 빨간 것들을 보고 “저것은 빨간색이다”라는 소리(noise)를 발화하게끔 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저것은 빨간색이다”라는 소리는 분별반응의 산물이자 또한 관찰자의 개념적용의 산물이기도 하다.’¹⁴⁾

분별반응이 초기지각에 해당한다면 개념적용은 후기지각에 해당한다 하겠다.¹⁵⁾ 그러나 셀라스는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 방점을 둔다. 이점을 맥도웰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철학적 분석의 모든 단계는 경험에 대한 회고적 사유, 즉 매개된 사유에서 기인한다. 메를로-퐁티가 막상 경험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을 때 그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항시 이미 완결된 경험이었다. 발생중인 경험이 아니었다.

메를로-퐁티는 발생으로서의 경험을 몸과 세계의 존재론적 동질성과 차이의 그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몸과 세계를 전제하고 경험이 이 둘 사이의 관계의 산물이자 실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보기, 만지기, 경험하기, 발생·생성중인 경험은 실체가 아니라 주체이다. 경험하기라는 주체로부터 실체인 몸-세계가 구성되고 드러난다. 경험을 실체로 착각하는 것은 경험을 오직 경험된 결과-상태로 보기 때문이다. 실체로부터 주체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부터 실체가 생성되는 것이다. 살을 주체로 본다면 살은 실체가 아니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살의 진리인 보는 자-보이는 것의 가역성은 결국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주체

살 개념자체가 종종 이율배반에 빠지는 것은 주체와 실체를 혼돈하는 것에서 연유한다. 보는 자가 아닌 보는 행위·봄이 주체이다. 주체는 동사이고 실체는 명사이다. 살은 주체임에도 명사로 사용하다보니 실체로 혼돈된다. 살개념을 구상함에 있어서 메를로-퐁티는¹⁶⁾ 가장 자명한 현상들을 기술하는 것으로 자신의 분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때 자명한 것이란 봄은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의 최초의 분화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봄·만짐으로서의 경험은 분화의 사건이다.

보이는 것은 보는 자 없이는 성립되지 않기에 보는 자 없는 봄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 그러나

14) R. Brandom, *Tales of the Mighty Dead*,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p.350

15) 분별반응성향(a reliable differential responsive disposition, “RDBD”)이란 점에서 보면 앵무새의 말과 사람의 말은 다를 게 없다. 만약 앵무새가 “빨강”의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을 적용하여 “저것은 빨간색이다”라는 소리를 낸 것이라면, 그런 앵무새의 행위는 “저기에 빨간 무언가가 있다”는 개념적 내용을 승인하고 그에 따라서 그러한 자신의 개념적 찬동을 겉으로 드러난 실행으로 옮긴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앵무새가 “빨강”의 개념을 갖고서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저것은 빨간색이다”라는 찬동으로부터 “저것은 파란색이 아니다”, “저것은 무색(無色)이 아니다.”를 추론할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빨간 물건은 모조리 부리로 쪼아라.”라는 추가적인 명령이 주어진다. 저 물건을 부리로 쪼아야한다는 추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한다는 뜻이다. 앵무새는 그럴 수 없다. 더 오랫동안 더 철저히 훈련시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곧 앵무새도 능숙한 언어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능숙한 언어사용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앵무새는 다른 아닌 인간이다. (석기용, 「셀라스-브랜덤의 ‘관찰에 관한 이중구조 설명’과 인식 정당성 문제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No.6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pp.298-299)

16) 박신화, 「메를로-퐁티의 살 철학과 경험의 발생론」, 『철학과 현상학 연구』Vol.55, (한국현상학회, 2012), p.86

보는 자 역시 봄 없이는 불가능하다. 봄이 주체이고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실체이다. 메를로-퐁티는 봄으로부터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의 분화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봄의 첫 번째 분화는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봄이 전체와의 관계에서 규정되려면 봄을 제외한 전체, 즉 보지 않음(비봄)과 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봄/비봄, 경험/비경험의 자기부정관계가 전개되면서 부정과 이중부정의 종합으로서 실체가 등장할 것이다. 이는 다음장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한다.

‘엄힘 - 교차’장의 말을 빌리면, 삶은 이미 구분되어진 대상과 주체의 단순한 혼합이 아니라,¹⁷⁾ “대상과 주체를 형성하는 환경”¹⁸⁾이다. 그러나 삶이 대상과 주체의 구분·분화를 발생시키는 주체라면 그것은 환경일수는 없다. 환경은 외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삶이 외적전제·외적환경이라면, 삶은 주체로서 자기분화와 통일의 변증법적 운동을 할 수 없다. 분화된 것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분화자체이며, 따라서 분석은 분화된 것들의 존재에 ‘앞서는’ 분화자체로 복귀해야 한다.¹⁹⁾ 분화를 분화과정과 분화결과로 구분한다면 분화결과로서의 분화된 것들은 주체가 아닌 실체이다. 분화과정은 주체에 포함된 계기나 측면이 자기타자화·자기구별화 하는 과정이다. 분화과정의 발생을 위해서는 주체로서의 봄, 만짐, 경험의 자기부정에 의한 이행이 있어야 한다. 봄/보임, 만짐/만져짐, 경험함/경험됨으로의 이행이다. 메를로-퐁티는 주체와 실체의 관계를 혼돈함으로서 이에 대한 일관된 논리를 견지하지 못한다.

4. 변증법

메를로-퐁티는 주체의 변증법적 전개를 혼동하고 있다. 주체의 운동으로부터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을 보지 못하기에 주체와 실체를, 한 실체와 다른 실체로, 별개의 타자로만 본다.

감각적 확실성으로 표현된 ‘지금이다’는 표현되는 순간 이미 ‘지금이 아니다’가 된다. 결국 이는 ‘지금은 ‘지금’이 아니다’가 된다. 그러면 이는 다시 ‘지금은 ‘지금’이 아니다’가 아니다’가 되며 이는 ‘지금은 지금이다’가 된다. 1차부정을 2차부정을 통해 긍정으로 복귀한다.

이로서 ‘지금이다’는 동시에 ‘지금’이 아니다’이며 ‘지금’이 아니다’는 동시에 ‘지금이다’라는 종합이 성립한다. 이는 이율배반이자 이율배반이 아니다. 이를 부정적자기관계라고 해보자. ‘지금이다’는 ‘지금’이 아니다’라는 자기부정관계를 통해 긍정과 부정을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이율배반구조에 포함된 자기부정은 곧 모순이 된다.

이는 봄·만짐 등에 적용되어도 마찬가지다. 즉 ‘봄은 ‘봄’이 아니다’가 되고 ‘봄은 ‘봄’이 아니다’가 아니다’가 되어 모순운동이 시작된다. ‘봄은 봄’이자 동시에 ‘봄’이 아니다’가 실재하는 봄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재로서의 봄이 구성된다. 봄을 둘러싼 전체는 봄을 제외한 모든 것이므로 봄 아닌 것이 된다. 즉 봄과 비봄이 전체이다. 이처럼 봄은 비봄을 통해 가장 단순한 전체와의 관계를 구성한다. 봄·보기가 구성된다는 표현이 낯설 수 있다. 이는 발견된다거나 매개되어 정립된다고 이해해도 될 것이다.

메를로-퐁티는 봄이 경험됨과 동시에 ‘보는 자’와 ‘보이는 것’으로 분화된다고 했으나 이는 오류이다. 봄에 대해 가장 먼저 분화되는 것은 비봄이다. 봄과 비봄의 통일로부터 구별이 생성

17) Merleau-Ponty, *Le Visible et l'Invisible*, (Gallimard, 1964)/(남수인, 최의영 옮김, 동문선, 2004), p.185 참조.

18) Merleau-Ponty, *Le Visible et l'Invisible*, (Gallimard, 1964)/(남수인, 최의영 옮김, 동문선, 2004), p.193

19) 박신화, 「메를로-퐁티의 살 철학과 경험의 발생론」, 『철학과 현상학 연구』Vol.55, (한국현상학회, 2012), p.87

되고, 구별의 대립적 계기인 '스스로 있음'과 '달리 있음'이 분화된다. 이러한 분화와 통일과정을 거치며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개념은 점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으로 발전한다. 보이는 것이 사물로, 사물이 실체로, 실체가 개별자로 전개되고 나서야 '보는 자'가 논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근거가 갖추어진다. 결과적으로 봄이 보이는 것과 보는 자로 분화되긴 하지만 이는 서로 다른 차원·다른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은 봄으로부터 구성된 것이기에 보는 자가 본다는 것은 본말전도이다. 예를 들면 '나는 생각한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내가 생각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생각함을 통해 나를 구성한다. 생각함·사유활동을 통해서야 비로소 내가 발견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나」가 성립될 수 있을 뿐 생각과 무관한, 생각에 선행하는 '나'가 성립될 수는 없다. 그러나 봄에 의해 보는 자가 정립되면 「'보는'자」는 봄과 분리할 수 없는 주체적실체가 된다. 「'보는'나」는 「'생각하는'나」처럼 주체적실체, 주체가 만든 실체이다.

따라서 메를로-퐁티는 자신의 방법을 변증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변증법전개는 엄밀하지 못하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지점들이 메를로-퐁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계로 작용한다.